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년 1/4분기 오리관측

오리 사육 · 도축 마릿수는 감소하나, 이미 많은 냉동재고량으로 가격 약세 예상

2020년 12월 이후 도축 마릿수는 12월 498만 9천 마리로 올 2021년 1월 479만 4천 마리, 2월 472만 7천 마리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육용오리 사육마릿수 감소로 오리 도축 마릿수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병원성 AI 이후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해 종오리 사육 마릿수가 감소했고, 오리휴지기제 시행에 따른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3월~5월 병아리 입식 마릿수는 전년 대비 28.2%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도축 마릿수는 21.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리 사육 및 가격 동향

오리 사육 동향

오리 사육·도축 마릿수 전년 대비 감소

지난해 12월 오리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854만 6천 마리였다. 전국의 오리 사육 농가수는 566 가구로 전년 대비 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사육 규모 1만9천 마리) 고병원성 AI 확진 후 3km 이내 오리농장(10만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것이 사육 마릿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오리고기 냉동재고량

오리고기 소비 감소로 재고량 증가

오리고기 냉동재고량은 2020년 10월 기준 584만 8천 마리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8월과 9월에는 오리고기 소비 감소로 오리고기 냉동재고량이 전년 대비 각각 12.8% 증가한 542만 3천 마리, 3.6% 증가한 535만 마리였다. 하지만 2021년 2월 이후 도축이 줄어 냉동재고량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리 수급 전망

오리 사육전망

2월 오리 사육·도축 마릿수 전년 대비 감소

구분	2020년 12월	2021년 2월(추정)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	854만 6천 마리	690만 2천 마리(전년 대비 12.9% 감소)
종오리 사육 마릿수	73만 2천 마리	58만 7천 마리(전년 대비 22.2% 감소)
육용오리 도축 마릿수	498만 9천 마리	472만 7천 마리(전년 대비 2.0% 감소)

(자료: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오리 가격전망

2월 오리 산지가격 전년과 비슷하거나 상승

2월 오리 산지가격은 생체 3.5kg 기준 4천8백원 ~ 5천3백 원이 전망된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오리고기 소비 감소분이 반영된 결과로 종오리 사육감소, 육용오리 입식 감소로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오리 중기 수급 전망

2~4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 전년 대비 하락

종오리 사육 마릿수 감소 지속으로 병아리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구분	2월	3월	4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 전망	96.7	95.8	94.7
육용오리 도축 마릿수(추정)	472만 7천 마리	467만 7천 마리	459만 4천 마리

주)2020년 2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 100